



당뇨병, 무엇때문에 무서운가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보다 그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더욱 심각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토록 무섭다는 당뇨병의 합병증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의 유수한 당뇨병 전문잡지 **디아비트 포캐스트 (Diabetes Forcast)** 지에 실린 **당뇨병 합병증 기사**를 전문번역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注 -



■ 눈 (시력상실·실명)

시력상실은 제 1형 당뇨병(인슐린의존형)과 제 2형 당뇨병(비인슐린의존형)환자 모두에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중의 하나로 매년 15,000명에서 39,000명에 이르는 사람이 실명을 겪고 있다.

당뇨환자들이 실명을 겪게되는 주원인은 당뇨성 망막증 때문이며 이 용어는 당뇨로 인하여 망막의 미세혈관들이 입게되는 망막혈관의 손상을 의미한다. 제 1형 당뇨병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당뇨를 앓고난 후 15년이 경과하면 거의 모두에게 망막의 변화가 생겨났다.

비진행형 망막증은 흔히 발생하며 증세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미약해, 시력상실을 초래치 않으며 보통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망막증의 진행이 시작되면 시력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

이다.

반면 진행형 망막증은 그 형태가 매우 심각해 실명으로까지 이어진다.

인슐린의존형 당뇨환자의 25퍼센트와 비인슐린의존형 당뇨환자의 10퍼센트가 당뇨병으로 진단받은후 15년이 지나면 진행형 망막증을 겪게된다.

■ 신장 (콩팥)

신장질환과 신장증은 심각한 병이며 당뇨환자의 경우 조기사망에 이르게된다. 당뇨성신장증은 요단백으로 시작되며(오줌에서 단백질 검출) 종국에는 신장병으로 발전한다. 마지막 단계에는 신장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다.

당뇨환자의 사망중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가 신장질환으로 사망하게되고 당뇨병을 앓게

된후 15년이 지나면 인슐린의존형 환자의 34 퍼센트와 비인슐린의존형환자의 19퍼센트가 당뇨병성 신장증으로 발전한다.

■ 신경증

신경에 손상을 일으키는 당뇨병성 신경증은 당뇨병환자에 있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괴로운 만성질환이다. 신경증의 가장 흔한 형태는 말초신경인데 보통 다리와 발에서 나타나며 손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율신경증은 방광, 장도(장의 통과로)와 성기 등의 자율신경에 발생한다.

신경증의 일부는 신경섬유가 손상을 입거나 상실될때 일어난다. 신경섬유가 상실되어 근 신경연결섬유에 영향을 주면 근무력증이 생기며, 신경섬유의 상실로 인하여 감각근에 영향을 주면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감각상실은 심각한 결말을 초래하는데 예를 들면 발이나 발가락 상처를 입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처를 입게되면 발에 심각한 감염증이 일어나며, 바로 이 감염증이 당뇨병환자가 하지절단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당뇨환자의 8퍼센트가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바로 그때 이미 신경증을 앓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당뇨병환자중 최소 절반이상이 당뇨병성 신경증을 앓게된다. 자율신경증은 당뇨병환자의 20내지 40퍼센트에서 나타나며, 남성당뇨환

자의 35내지 50퍼센트가 겪게되는 성기능부전이 그 대표적인 결과이다.

자율신경증으로 인하여 소화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고 혈압이 안정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라면 혈압조절이 더욱 어려워진다.

■ 뇌졸중

40세가 넘으면 뇌졸중은 당뇨병환자가 아닌 사람보다 당뇨병환자인 사람이 2배에서 6배까지 더 자주 발생한다. 고혈압은 당뇨병환자에 있어 뇌졸중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당뇨환자가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것은 당뇨병환자에 있어서 고혈압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 심혈관질환

미국의 경우 당뇨병환자의 심장질환율은 당뇨병환자가 아닌 사람보다 2배에서 4배나 더 높다. 당뇨병환자의 사망원인중 55퍼센트가 심혈관질환에 기인하는 것이다.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은 인슐린의존형 환자가 흔히 더 높으며, 특히 혈당조절을 게을리하는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난다.

심혈관질환의 주위험인자인 고혈압은 성인 당뇨병환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고혈압환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